소중함의 재앙과 유월절

(출12:1~28)

5.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 이 달 열나흗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8.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9.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0.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11.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2.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14.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5.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소중함의 재앙과 유월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소중함의 재앙과 유월절'
가수 혜령이 부른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멀리 떠나요"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읽어보면 "그렇게 많이 힘들었나요 곁에 있어주는 것조차 싫을만큼 / 그런 그대를 보며 행복했었던 나는 그대보다 나쁜 사람이죠 / 하루하루 쌓아온 많은 기억들 이제 하루하루 버려야만 하겠죠 / 아무 준비도 없이 그대 보내는 나는 너무 놀라 울지도 못하네요 / 잊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는 거죠 / 그대 생각에 눈물로 잠이 들어도 옅은 꿈속에서 조차 그대가 보이지만 / 지워야 하는 거죠 오늘부터"
절반쯤 읽었는데 유월절의 노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결별을 선언한 모양입니다. 후렴이 "잊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는 거죠"라고 합니다.
싫다고 하니 보내긴 보내야 하는데 '그대 생각에 눈물로 잠이 들어도 옅은 꿈속에서 조차 그

대가 보이지만 지워야 하는 거죠 오늘부터'라고 합니다.
'옅은 꿈속에서 조차 그대가 보인다.'라는 말은 결별 선언을 듣고 나서 잠을 못 이루는 것인데, 슬픔과 마음의 아픔을 안고서 잠을 못 이루다가 잠깐 조는데, 그 사이의 꿈이 다 그 사람의 꿈입니다. 못됐어요. 자기를 좋아해서 마음 아파하는 여자를 놔두고 갑니다.

이 유월절이 선민 역사의 원년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유월절의 의미는 이 노래의 제목인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멀리 떠나요'에서처럼, 선민의 삶을 한 마디로 특징지으면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멀리 떠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생각 때문에 슬퍼서 잠을 못 이루다가 잠깐 꿈을 꾸어도 그 생각이 날 정도로, 소중한 것을 오늘부터는 멀리 멀리 떠나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소중한 것을 멀리 떠나보내면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는 대로 떠올려 보면 목숨, 시간, 가족, 나라, 현재, 미래, 돈, 건강, 명예 등 이 땅에서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이미 갖고 있어서 소중하든지, 갖고 싶어서 소중하든지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내 마음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소중한 것들이 바로 모든 재앙의 근본뿌리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 재앙을 부른다.'
단순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만, 마음에 소중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재앙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즐거움, 슬픔, 기쁨, 고통도 다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처참한 재앙이 임하는데, 이것이 선민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되는 것이고, 선민으로서의 역사의 기원이 되는 날입니다. 재밌는 것은 열 개의 재앙에서 첫 재앙이 피 재앙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재앙이 또 피와 관련된 사건으로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이 납니다.
나일 강의 모든 하천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영적인 상태에서 어떤 재앙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피는 생명이므로 생명과 관계된 것으로 내게 가장한 소중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살아나게 하는 힘이 생명입니다. 살아 있음(生)을 명(命)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서 생각하고 살아 있어서 계획하고 살아 있어서 행동합니다. 그렇게 하는 힘이 생명인데 그것을 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 재앙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대상이 나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주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에 장자가 다 죽는 열 번째 재앙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요즘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장자는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 중에 최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존재가 상징하는 바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내게 소중한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소중함 그 자체인데 그 소중한 장자를 다 죽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이 땅에서 소중한 것이 마음에 있게 된 상태가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자는 소중한 것들의 대표격이고 상징이기에 그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마음에 소중한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땅으로부터 소중한 것을 발견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 상태가 멸망과 사망에 부합하는 재앙이고 오류라는 것을 보여주고 각 가정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재앙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것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창22:12절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빼앗아 가시고 아브라함은 장자를 내놓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을 발견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재앙의 상태인데, 그것이 재앙의 상태인 줄을 모르고 가족, 나라, 목숨, 자식의 소중함 등을 마음에 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열 번째 재앙을 통해 장자를 다 죽이심으로,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마음에 담는 것이 재앙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라고 나옵니다.
어린 숫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른 것의 의미는, 어린양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피가 없는 집으로 들어가 장자를 죽입니다.
‘피를 발랐다’
이 말은 그 소중한 것이 장자이든 재산이든 나의 목숨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그 가장 소중한 것이 죽어서 흘린 피가 문 앞에 묻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마음에 담을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죽음 재앙을 불러오는 사자가 뛰어넘어 갔는데 그 날을 ‘뛰어넘는다.’라는 뜻의 ‘유월절(逾越節)’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아시겠지요.
예수님을 예표 하는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생명인데, 예를 들어 나인 성 과부에게 있어서의 외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 과부를 살게 하는 힘이 외아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나를 살게 하는 가장 소중한 대상이자 힘인 그것이 죽었다는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나의 생명인데, 내가 죽었다는 것은 육체와는 무관하게 살게 하는 힘인 그 생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문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소중한 것을 발견해서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죄이고 저주이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 인방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그 동안에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들이 내 마음에서 다 죽었다는 표현과 증거이고, 이제 우리 집 안에는 이 땅에서 소중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
이 말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다는 것을 뜻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자 나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다는 것이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의 죽음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내게 소중한 것이 장자였다면 그 장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가정 안에서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이제 그 소중하게 담았던 것을 양과 동일시해서 죽여서 없앤 것입니다. 보통 열 사람 정도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먹은 모양인데,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동안 내게 가장 소중했던 것들이 죽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태양력으로는 3~4월, 아빕월(니산월)의 첫째 달로 쳐서 그 14일을 말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3월 14일이 되겠지요.
저녁 때 쯤에 명절 만찬으로 대대로 먹어야 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먹다가는 체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대 받아서 식사하실 때의 장면을 보면 동네의 죄인이었던 여자가 들어와서 눈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을 때에도 신을 벗고 들어가셨고 비스듬히 누우셨는데, 유월절에는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밥맛이 나겠습니까? 식사를 즐길 수나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명절 음식이라는 것은 먼 곳에서부터 모여서 긴장하던 삶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먹는 음식인데, 이 유월절의 명절음식은 먼 곳에서 와서 마음을 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먼 곳을 향해 떠나가야 될 입장에서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될 입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먹는 것인데,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의 죽음을 먹는 것입니다.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암환자가 이제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 동안 소중했던 것들을 마음에서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민은 이 땅을 떠나 저 하늘로 가야하므로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의 죽음을 먹는 자들입니다. 그것들 자체가 죽는 것 대신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죽음을 먹으며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그 하늘나라로 가야될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사람들이 애굽에 땅을 사겠습니까? 애굽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애굽에서 무슨 소원을 갖겠습니까? 그 땅은 떠나야 될 땅입니다. 이 땅에서 소중한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과,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야한다는 것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선민은 항상 이 땅에서 나의 마음을 묶어두는 소중한 것들의 죽음을 먹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나의 소중한 것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호흡하듯이 그 소중한 것의 죽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가장 편안해야 될 명절 식사 자리에서 마음을 거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하늘을 향해 마음을 보내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뜻이고, 그렇게 살아 갈 때에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침’이라는 것은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침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서 저녁으로 마감이 되지만, 이들은 저녁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되어 중간에 아침이 다가오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활동의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피가 뿌려진 그 문 안 쪽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직장 활동을 하든지, 가족들과 활동을 하든지, 무슨 활동이전에 모든 땅의 소중한 것들이 죽은 상태로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소중한 것들의 죽음을 먹으며, 허리에 띠와 발에 신발과 손에 지팡이를 잡은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 계획이나 소원을 갖지 말고, 오직 내게 소중하고 내 기쁨과 슬픔을 좌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하늘에 있음을 알고 하늘로 마음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하늘에 정착하여 이 땅에서는 내 마음에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삶을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8절에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라고 나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데, 누룩이 뜻하는 것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명령어를 말합니다. ‘돈을 벌어야 산다.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기 위해 소고기를 적게 먹어야 한다. 청국장이 혈액순환에 좋다’ 등의 모든 방면에서 나를 행동하게 하는 신념체계나 교훈, 가르침, 격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들이 싹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들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세상의 가르침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소중한 것들을 이루거나 확장하거나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과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누룩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들의 죽음을 먹고 마음에서 소중한 것은 하늘만이 남은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면 나를 행동하게 하는 원리원칙이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원리원칙이 임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아서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쓴 나물’은 뭡니까?
사람들은 쓴 나물에 대해서 노예 생활을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을 기억하면서 바로의 노예로서 살고 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노예로서 이 땅을 살아야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쓴 나물이 노예 생활의 고충을 말하는 것이라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지,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노예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왜 피를 발랐습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소중한 것이라고 발견해서 내 마음속에 집어넣었던 모든 것들이 죽었다는 표시가 바로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것이고, 이제 이 땅에서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계획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상태에서 이 땅에서 뭔가를 내가 이룸으로서 마음에 기쁨과 평화와 안정과 행복을 누리겠다는 생각을 일체 갖지 않고, 오직 내 기쁨과 행복은 하늘에만 있음을 알고, 떠나야 될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중한 것을 마음에 담은 자들이 이런 저런 원칙을 쫓아다니며 살아갈 때에, 이제 나는 오직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만을 듣겠다는 것이 무교병을 먹겠다는 뜻이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살겠다는 것이며, 그런 노예의 삶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조차도 살아가셨고, 이것이 바로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본 노래 가사에 ‘오늘부터 잊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유월절이라는 오늘부터 선민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한 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발견한 소중한 모든 것들의 죽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그 소

중한 것들의 죽음을 먹으면서, 이 땅에서 소중한 것이 없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중함의 대상이 되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지금 내가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의 죽음임을 깨닫고, 그 소중한 것의 죽음을 먹음으로 이 땅에서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고 사는 자가 되므로 하늘에만 마음을 두며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노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